

CAGLIERO11

Bollettino di Animazione Missionaria Salesiana



예수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살레시오 선교사들과 살레시오 선교를 도와주는 친구들에게!

2010년의 마지막 달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많은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42명의 새로운 선교사를 파견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예수님에 대한 첫 복음 선포에 발걸음을 함께하도록 기회를 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과 사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선교국이 협력하여 살레시오 선교에 큰 효과와 결실을 보았습니다.

나도 선교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http://say.sdb.org/blogs/c11>)를 통해, 가능한 한, 매주 일어난 일과 모임의 결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2010년의 새로운 선교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 포탈 사이트안에 베트남어로 된 선교사 양성을 위한 30가지의 서식을 완성 시킨 아고라를 갖게 했습니다

(<http://say.sdb.org/agora/index.php?board=17.0>).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목에서 일하는 동료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선교의 날을 위한 비주얼 자료들을 잘 준비해 주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유튜브 ANS 채널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증언을 들었습니다 (<http://www.youtube.com/user/ANSchannel#p/u/3/79Cq9ePEdII>). 최근에 한 젊은 회원이 예수 사랑에 대한 노래를 젊은이들이 부르도록 도와주고 싶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유럽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멜로디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사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젊은 회원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예수 사랑의 노래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빕니다!

Vaclav Klement

Don Vaclav Klement, SDB
Consigliere per le Missioni

유럽 계획을 위해 선교사를 찾습니다

관구 - 국가	필요한 언어	환경과 선교사에게 요구 되는 자질
AUS-오스트리아	독일어	청소년 센터 - 오라토리오, 본당, 이민자 사목, 살레시오 청소년 운동
BEN-벨기에 북부	화란어	이민자 사목, 공동체의 국제화
BEN-네델란드	화란어	이민자 사목, 공동체의 국제화
CEP-불기리아	불가리아어, 로마어	집시 사목, 공동체의 국제화
FRB-프랑스	불어	이민자들을 위한 본당
FRB-벨기에 남부	불어	학교, 청소년 센터(브뤼셀)
GBR-영국	영어	학교, 영성 센터, 이민자 사목, 아프리카와 유럽으로부터 젊은 회원
IME-알바니아, 코소보	알바니아어, 이태리어	첫 복음선포, 적은 회원 특히 수사님
IRL-아일랜드	영어	학교, 청소년 센터, 대학생 사목

네델란드의 선교사가



내가 네델란드로 가야하는 순명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받은 순명 때문에 놀래기만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네델란드는 나 같은 젊은 회원이 갈 나라가 아니라고들 말했습니다. 나는 유럽 특히 네델란드의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듣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나는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만 보면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커다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도전들을 피하고 거절하면 이 세상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누가 영적 여행을 하겠습니까? 아마 요즘 젊은이들에게 '영성'이라는 단어는 별 흥미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영성이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이 귀한 보물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이것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는 행복은 하느님 없이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맛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느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기쁨이시고 이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분의 뜻 앞에서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여기에 남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 만큼 잘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느님 사랑의 표시이고, 자체로 커다란 도전입니다.

여기는 ...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은 질문들입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지요?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한 표현들입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듭니까? 대답은 단 하나 신앙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살레시오 선교사에게 이는 승통을 튀어 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선교사 편에서도, 공동체 편에서도 소통과 열린 마음이 부족하면 모든 좋은 의도를 다 망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글을 통해 나에게 것처럼 느끼도록 도와주고, 이 사랑스러운 땅에서 살레시오 선교를 하도록 나에게 신뢰를 준 나의 공동체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학생. Andreas jebarus
인도네시아인, 네델란드 선교사

유럽: 선교의 땅

살레시오 선교국과 살레시오 수녀회 선교사무실에서 오늘날 유럽의 한계 상황과 첫 복음 선포에 대한 살레시오 선교 연구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 되었고, 어떻게 하면 유럽에서 효과적으로 첫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 하였습니다. 커다란 관심사는 유럽의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선포자들을 양성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웃을 향한 존경과 신뢰의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한 유럽 계획을 평가하고 다음 계속해야 하는 활동 노선을 점검하기 위해, 다가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총장 신부님께서 유럽의 관구장들을 세 번째로 소집합니다.

2010년 9월- 유럽을 위한 선교사들
총장님과 함께



살레시오 선교 지향

유럽의 살레시오 회원들

유럽 계획에 대한 특별히 기여하기 위해 유럽의 세 개 지역 살레시오 회원들이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소비주의적이고 세속화된 자신들의 사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새로이 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카리스마의 미래는 신앙을 나누고 열정을 가지고 회원들이 쇄신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분명한 제안을 가지고 젊은이들안에서 머물고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살레시오 봉헌 생활에 개인적인 초대를 해야 합니다. 총장님과 최고 평의원들과 함께 세 번째 갖는 유럽 관구장들의 모임(로마, 2010년 11월 26-28)에서 선택한 사목 노선들을 모든 회원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 모든 사업체에서 사목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